전주매일 CMYK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의료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음 10월 8일) 제21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수능 예비소집… 시험실 확인하는 수험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주여자고등학교(전북도교육청 67지구 제5 시험장)에서 예비소집을 온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 실시

전북도내 6개 시험지구 63개 시험장에서 2만560명 응시…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1교시 국어 · 2교시 수학 등 치러져…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부정행위 주의 요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도내 6개 시험지구 6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수능에는 도내에서 총 2만560명이 응시하며, 시험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보게 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제1선택, 제2선택) 각 시험 종료령 후 해당 과목(영역) 답란 이외 마킹,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책상스티커에 적힌) 이외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문제를 풀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 처리된다.

지난해에는 도내에서 핸드폰 소지 1건, 시계 위반 1건, 시험시간 위반 2건,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4건 등 총 8건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수능 시험 관리를 위해 운영요원, 감독교사 등 총 4,070명을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수능 하루 전인 14일에는 수험생 예비소집 및 감독관 예비소집을 실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은성 기자

순조로운 수능시험 진행 위해 전북경찰, 경찰인력 대거 투입

전북지방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5일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해 순조로운 시험 진행을 돕는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시험 당일 경찰 696명과 장비 148대를 동원하는 수능일 경비·교통 대책을 세웠다.

경찰은 우선 시험장 반경 2㎞ 도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험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불법주차 차량 등 교통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상습 정체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에 우선권을 준다.

또 듣기평가가 시작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간 경적과 사이렌 같은 소음을 자제시킬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4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
8면 - 농촌영화제 전국 최초 고창서 개최

세계 최대 복합소재 한눈에

국제탄소페스티벌 개막

JEC ASIA 전시회와 공동 개최
전북지역 탄소기업 20여곳 참가
복합재 분야 세계적 기업 집결
탄소산업 홍보 프로그램 다채

전북도가 주최하고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주관하는 제13회 국제탄소 페스티벌(ICF)이 '전북에서 세계로, 미래를 열어가는 탄소융복합산업(Carbon for the Future, from Jeonbuk to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관련사진 2면〉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복합소재 전문기업인 JEC社와 공동 개최하는 박람회로, 전 세계 40개국 250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7,000여명의 관람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권 최대의 국제복합소재 전시회로 치러진다.

국제탄소페스티벌은 2016년까지는 전북도청 일원에서 매년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JEC ASIA 전시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게 됐으며, 한국 탄소산업의 메카인 전북도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JEC그룹은 전 세계 96개국, 25만명의 복합소재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는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며, JEC ASIA는 JEC그룹이 개최하는 아시아권 복합소재 전시회다.

이날 개회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JEC그룹 에릭 피에르장 회장, 파비앙 페논 프랑스 대사, 이건홍 한국탄소학회장,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철강화학과장 등 주요인사들과 국내외 석학, 기업인 등 300여명이 함께해 국제탄소페스티벌과 JEC ASIA 개막을 축하했다.

특히, JEC그룹에서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탄소산업의 기술동향을 소개하는 ICF 컨퍼런스, ICF 특별전시관, 탄소악기 체험공간, 전북도정 홍보관, 카본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보인다.

첫 프로그램인 ICF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석학 12명(해외 10명, 국내 2명)이 연사로 참석해, 탄소소재의 대량생산에 관한 전략적 접근방법에 대한 발표와 정보공유의 자리가 마련됐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탄소선진국가의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 김학성 교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황지영 박사 등 탄소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명실상부한 국제컨퍼런스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ICF 특별전시관은 코엑스 3층 D2 전시관에 마련되어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도내 탄소복합재 우수 중소기업 20여개사의 탄소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아울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스에는 독일 탄소복합재 클러스터인 MAI 카본 클러스터와 수행 중인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국제탄소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 복합소재 전시회와 함께 개최돼 전북의 탄소산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대, 전기특장차 기업 광림과 상호 협력

군산대학교가 14일 대학본부에서 국내 건설·환경산업 및 국가방위 분야 특장차 업계의 선두주자인 ㈜광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군산대학교 곽병선 총장 및 주요 보직자, 광림 성석경 대표와 주요 관계자,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 특장차 및 관련 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특장차 관련 기계·전기 분야 등에 대한 R&D 지원 및 노하우 공유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에 대한 공동활용 ▲광림 특장차 군산지역 진출시 군산대 관련학과 재학생 취업 지원 등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18 - 다 - 37호
(심의일자 : 2018. 1. 30 현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1588 - 4477
www.jbbank.co.kr